

69개 표현 허위...전두환 형사재판에도 영향

5·18 왜곡 회고록 전두환 7000만원 배상 판결 의미

객관적 근거없는 역사 왜곡 판단...5·18 규명 촉매제 기대 10월1일로 연기된 고 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 '주목'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모두 5월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5월단체와 광주시민들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시행을 하루 앞둔 13일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역사 왜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재판이 5·18진상규명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이 오는 10월 1일로 연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5·18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을 비

롯한 법률대리인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한 '5·18 당시 계엄군에 대한 모든 지휘·명령은 계엄사령관을 통해 이뤄졌을 뿐 보안사령관인 본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수의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 광주 시민을 무장하게 하고 계엄군에게 폭력을 행사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일 뿐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총기 발포 및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여부였다. 이는 오는 10월 예정된 형사재판의 쟁점과도 맞물리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신근부의 내란 음모 사건 형사판결이나 국회 청문회, 군과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5·18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 과정 등을 통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신근부가 민주적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정권 장악 장악물로 보고 과도하게 총기를 사용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출판 활동을 통해 5·18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 왜곡이라고 막는 것이다.

재판부는 5월 단체가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한 전두환 회고록(수정본 포함)의 69개 표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5·18 사태의 발단에서 종결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위대들이 복합의 지령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교도소 습격했으며, 이는 미전향장기수, 간첩, 강력범 등을 해방시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유언비어 가운데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마구 학살해 암

매장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곳을 피해보기도 했지만, 그런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이번 소송을 이끈 김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장)는 "금전적 배상 보다는 전두환 회고록의 허위와 왜곡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서 "전두환씨는 허위와 변명으로 일관한 회고록을 스스로 폐기하고 더 늦기 전에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과 참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재판으로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역사왜곡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입증됐다"며 "법원은 앞으로 열리는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상임이사는 이어 "5·18진상규명특별법에는 처벌조항도 있지만 사면 조항도 있다"며 "계엄군 지휘관들이 더 이상 전두환 그늘에 숨지 말고 앞으로 출범하는 5·18조사위에 참여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외국인 마약사범 날로 급증 광주지검 무더기 철퇴 '성과'

중국·태국인 등 23명 적발

광주지검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마약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상)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광주 등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중국인 20명(한국 귀화 4명 포함), 태국인 2명, 미국인 1명 등 23명을 마약류관리에 대한 형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시켰으며, 5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중국인 A씨는 24회에 걸쳐 총 4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2.9g을 유통한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광주지검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 사이에 필로폰 매매와 투약 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사범을 단속해 왔다.

특히 이번엔 적발된 중국인들은 필로폰을 주사나 음주수에 타마시는 기존 투약방법 대신 마약을 가열한 뒤 발생한 연기를 빨대와 풀병 등을 이용해 흡입하는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프리베이스 방식은 1회 투입 마약 분량이 다소 많이 드는 반면 주사바늘을 몸에 삽입해야 하는 기존 주사방식과 달리 거부감이 없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효과 등도 있어 여성이나 일반인이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사범은 국내 곳곳의 건설현장 등을 돌며 자국민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SNS를 통해 판매광고를 하고, 거래를 하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이 적발한 마약사범(내국인 포함)은 2015년 145명, 2016년 224명, 2017년 160명, 올 상반기 121명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촬영 중 성추행' 배우 1심 무죄→2심 유죄

영화촬영 중 상대 배역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죄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중 배우 자신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동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스려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여성대회 열기 13일 오후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여성 71만명의 변화의 바람'을 주제로 제26회 광주 여성대회 열렸다. /최한배 기자 choi@kwangju.co.kr

노인 상대 거액 옷도박판 개장 조폭 등 2명 구속

광주전남 등을 오가며 거액의 옷을 도박판을 벌인 조폭 등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주로 노인들을 모아 거액의 옷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조폭조력배 2명(46)씨와 문모(5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씨 등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

지역 곳곳에서 옷도박판을 벌여 10%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 북구의 한 정자에서 노인을 모집해, 광주전남·영산강변·공공건물 주차장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도박판을 벌였다.

도박은 한쪽 편에 돈을 걸어 이긴 쪽이 상대편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한

판당 수백만의 현금이 오갔다. 구씨 등은 이긴 쪽으로부터 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피의자들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도박장 개장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8000여만원이 입금됐으며, 옷도박판에서 오간 돈은 수익원대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4000여만원을 도박판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

경찰이 가정폭력 이어 음주운전 사고까지

경찰관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데 이어 음주사고까지 내 입건됐다.

광주광산경찰은 "13일 만취한 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의 한 경찰서 A(42)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2일 밤 11시에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기준인(0.1%)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들이 만류하자 자신의 차를 한쪽에 주차하려다 2차 사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경위는 이날 밤 9시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폭행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아내와 다툰 A경위는 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가수 구하라, 이별 요구 남친과 한밤중 싸움...경찰 출동 소동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가 한밤중에 이별을 요구하는 남친과 다툰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한밤중 소동.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 A씨가 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조사에 나

섰다는 것.

○이날 구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A씨와 다툰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면서 "당사자와 출석일정을 잡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